

사회파 소설의 ‘마초’ 영웅, 『인간시장』의 장충찬

정은경*

1. ‘투사형 청년’의 탄생
2. 르포·논픽션과의 혼종성
3. 하위남성들의 판타지-에로와 폭력
4. 위장된 민족주의와 폭력의 시물라크르
5.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대중소설 『인간시장』의 특징과 대중문화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인기는 무림의 고수이자 정의 수호자인 ‘장충찬’의 영웅적 활약상에 힘입은 바 크다. 장충찬은 70년대 청년문화가 보여주는 ‘퇴폐 멜로’의 반항아들과 달리 불의에 맞서 싸우는 투사형 청년이다. 신군부 쿠데타, 80년 광주비극 등의 5공화국의 폭력적 현실에 의해 다시 한번 좌절한 대중은 이 저돌적인 청년의 돈키호테적인 활약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러나 장충찬이 수호하는 정의란 ‘인신매매, 소매치기, 재벌 비리’와 같은 뒷골목의 치안이나 민생 정의에 한한 것이다. 장충찬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등의 의적, 토착적 영웅계보를 잇고 있으나, 70, 80년대 당대 현실에 훨씬 더 밀착해있다. 『인간시장』의 인기비결은 70년대 대중독물의 한 특징인, 르포·논픽션적 현장성 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시장』의 많은 내용은 당시 저널리즘에 등

*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교수

장한 사건들을 픽션화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서사양식 또한 르포·논픽션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준다.

장충찬은 방외인, 루저와 같은 하위남성들을 대표한다. 장충찬은 이들을 대신하여 부패한 일류를 응징하고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수단엔 주먹, 표창, 무술,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폭력배와의 연대이다. 이러한 수단에 의한 악의 응징은 근본적인 구조를 도외시한 채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대리만족을 겨냥한다. 폭력과 함께 『인간시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코드는 마초적 섹슈얼리티이다. ‘왕초’가 되고 싶어 하는 장충찬은 파시즘과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 남근주의적 마초의식을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하위 남성들의 영웅 표상이다. 『인간시장』은 후반부로 갈수록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있다. 민족/국가주의 영웅은 장충찬이라는 남근주의적 영웅형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이 이념은 군부독재라는 당시 폭력적 현실을 은폐하고, 대중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대리만족을 안겨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부패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장충찬의 폭력,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일종의 80년대에 대한 시물라크르로 볼 수 있다. 장충찬의 영웅주의는 데칼코마니처럼 80년대 독재정권을 모방하면서 근본적인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인간시장, 장충찬, 영웅주의, 마초, 폭력, 섹슈얼리티, 민족주의, 르포, 시물라크르)

1. ‘투사형 청년’의 탄생

김홍신의 『인간시장』은 초판된 지 2년만인 83년에 100만부 판매를 돌파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훈민정음 창제 이래 최고의 판매부수’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80년대 초중반 내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중소설이다. 81년 최초 《주간 한국》에 연재할 당시의 제목은 '스물 두 살의 자서전'이었으나 81년 10월 출판할 때 '인간시장'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1권은 나오자마자 10만권이 팔리고, 그 후속편도 연속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자 5권부터는 초판 10만부씩을 '대한교과서의 윤전기'에 돌리기도 했다.¹⁾ 김홍신은 이 책의 인기에 힘입어 비례대표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여의도 장충찬'으로 활약한다. 『인간시장』은 《주간 한국》에 89년까지 연재되었고, 1984년까지 1부 10권, 1989년까지 2부 10권이 출간되는 동안 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다. 또한 『인간시장』은 영화, TV 드라마로 여러 차례 제작되어 대중적 인기를 입증했다.²⁾

『인간시장』의 인기는 단연, '현대판 홍길동', '돈키호테', '인간 상록수' '현대의 암행어사' '슈퍼맨'이라 불리는 장충찬의 영웅적 활약상에 힘입은 바 크다. 스물두 살의 혈기왕성한 청년 '장충찬'³⁾은 산속에서 무술을 익힌 무림의 고수이자 '맛짱'을 떴다 하면 거의 패배하지 않는 최강자이다. 장충찬은 홍길동 같은 '의적'이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활빈당' 같은 반사회적 무리는 아니지만, 조직 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과 연대해 사회악을 응징함으로써 억압된 대중에게 복수의 쾌감과 승리의 판타지를 선사하는 '영웅'에 속한다. 『인간시장』은 거의 무협소설⁴⁾의 주인공에 가까운 장

1) 김홍신, <나의 작품 나의 얘기 김홍신 '인간시장'>, 『동아일보』, 1990.11.1.

2) 『인간시장』 영화는 <인간시장-작은 악마 스물 두 살의 자서전>(1983), <인간시장2-불타는 욕망>(1985), <인간시장-오! 하나님>(1989), <인간시장 3>(1991) 등 네 편으로 제작, 상영된 바 있는데 1,2편은 김두한 시리즈로 유명한 김효천 감독이, 3,4편은 주연 장충찬 역을 맡았던 진유영이 직접 감독을 맡았다. TV 드라마는 1988년에 김종학·송지나 연출·극본, 박상원 주연으로 MBC에서 제작·방영되었고, 2004년에는 김상경 주연, '2004 인간시장'이라는 제목으로 SBS에서 방송되었다.

3) 김홍신은 애초에 주인공의 이름을 서부활극마냥 권총을 찬 '권총찬'으로 지었으나 신문의 요구로 '장충찬'으로 바꾸었다고 한다.-김홍신, <나의 작품 나의 얘기 김홍신 '인간시장'>, 『동아일보』, 1990.11.1.

4) 『인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임성래의 논문(『『인간시

총찬을 내세워 70, 80년대 한국 사회의 각가지 부패 현장을 파헤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움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총찬이 ‘해결사’로 뛰어들어 나쁜 무리를 혼내주는 현장은, ‘창녀촌, 폭력배, 인신매매, 사이버 종교단체, 퇴폐업소, 소매치기 소굴, 연예계 카르텔, 부패한 재벌가, 촌지 교사, 가짜 휘발유 사기단, 부동산 투기꾼, 일본 야쿠자, 한국을 경제적으로 재정복하려는 일본의 비밀조직과 국제 지하조직, 보험회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그러나 『인간시장』의 인기는 단지 무협소설적 흥미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 1981년의 『인간시장』의 폭발적인 인기는 1979년 10.26 사태에 이은 신군부의 쿠데타,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폭력적 현실에 기인한 바 크다. 즉 70년대를 폭압적으로 짓눌렀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10월 26일 거짓말처럼 끝나자 수십 년간 억눌린 민주주의 열망이 터져나왔지만 ‘서울의 봄’은 길지 않았다. 12.12 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7,8월에는 수백명의 언론인을 해직, 11월에는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는 등의 역사적 폭거를 자행한다.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던 전두환은 81년 2월 25일 1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장』의 무협소설적 면모, 『대중서사연구』, Vol.6 No.1, 대중서사학회, 2001)은 『인간시장』의 인기를 무협소설의 유행, 즉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에 따른 문학의 상품화, 그리고 70년대의 정치적 억압에 의한 대중의 초인 열망에 부응한 무협소설과 관련 짓는다. 그는 『인간시장』의 무협소설적 면모로서 1)주인공이 문제해결을 하는 방식이 무예이고 2) 주제는 협의 실현 3) 남성 우월주의 신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4) 주인공과 여러 여인들의 애정갈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천정환과 정종현도 『인간시장』을 80년대라는 ‘무협의 시대’라는 맥락 하에서 분석하고 있다.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영웅적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80년대를 ‘무협’ 시대로 보고 유하의 『무림일기』(1988) 김영하의 『무협학생운동』(1987)의 맥락에서 『인간시장』을 무협지적 감수성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독서사』, 서해문집, 2018.

유신정권에 이은 신군부의 폭압적 통치는 언론통폐합과 함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172종, 617개의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했고, 강력한 사전검열을 통해 출판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해나갔다. 전두환 정권은 1981~1983년 3년 동안에만 1천 4백여 명의 제적생을 양산할 정도로 학생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러한 신군부와의 대결은 80년대 내내 민주화투쟁의 열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87년 항쟁' 이후와 이전은 다르다. 87년 항쟁의 승리 이후 학생운동은 붓물처럼 이어졌지만, 87년 이전의 학생운동은 '박종철 고문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목숨 건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충찬'이라는 저돌적 영웅에 대한 대중적 환호는 80년대 초중반의 이러한 폭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⁵⁾

22살의 혈기왕성한 청년, 장충찬은 70년대의 반항적인 청년들하고는 달랐다. 70년대의 청년문화가 통기타, 장발 등을 통해 불온성으로 기성체제에 저항했지만 그것은 히피와 같은 삐딱한 반항이자 도피이지 정면 대결이나 체제변혁이 될 수는 없었다. '장충찬'은 『별들의 고향』(최인호, 1974), 『바보들의 행진』(최인호, 1975), 『겨울여자』(조해일, 1975)와 같은 '퇴폐 멜로'⁶⁾의 남성주인공처럼 여자의 품에 안겨 사회적 패배를 위로

5) 박태순은 80년대 문학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눈 바 있다. "제1단계는 문학 아지트 운동이 요청되던 1984년 무렵까지의 기간이고, 제2단계는 전두환과 청년 학생 노동자들의 백병전이 치열해가던 1987년 무렵까지이고, 그리고 3단계는 1987년 6월 항쟁 및 노동투쟁 이후의 시기가 되지요." 이러한 시기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 80년대는 좀 더 세분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80년대 내내 학생운동 및 시민운동으로 점철된 역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박태순·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계간 『실천문학』 2012년 봄호, 123쪽;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유신체제 문학의 현실인식-1979년.12.12부터 1983년까지의 비평담론」, 『한민족문화연구』, Vol.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501쪽에서 재인용.

6) 김은하는 유신정권기의 대중서사물인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박범신의 『죽음보다 깊

받거나 동화같은 ‘고래사냥’으로 도피하지 않는다. 박범신의 섹스 심벌인 ‘영혼’(『죽음보다 깊은 잠』 1979)이나 폭력의 심벌인 ‘도엽’(『풀잎처럼 눕다』 1980)처럼 욕망의 도시에서 출세를 꿈꾸다 패배하여 사라지는 루저도, 자기 연민으로 벨랑콜리와 센티멘탈에 젖는 청년도 아니다. 장총찬은 사회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약자를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짜 사나이’이자 ‘영웅’으로 그려진다. 최인호, 박범신의 청년이 세상에 대한 환멸로 퇴폐, 위악의 낭만주의 길로 빠져둔 ‘업둥이’ 계열이라면, 『인간시장』은 세상과 정면대결하여 개혁하려는 ‘사생아’ 계열의 대중서사라 할 수 있다. ‘찌질하게’ 여성의 품에 안겨 위로받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갖고자 하는 남근적 영웅이지만, 다혜라는 한 여성에 대한 순정을 지키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다. 또한 체제 질서에 순응하여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어하는 속물적 인간도 아니다. 장총찬의 꿈은 이 나라의 대통령, 황제, 나아가 하느님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불의를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을 호출하며 하느님과 맞짱뜨는 장총찬은 강호의 대숲을 날아다니는 ‘판타지형’ 영웅으로서 돈키호테적인 저돌성을 장착한 투사형 청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쾌한 영웅호걸은 70년대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홍길동’과 ‘임꺽정’, ‘장길산’으로 이어지는 토착적 영웅들의 계보를 잇는다. 장총찬의 파노라마식 활약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던 교도소의 죄수들이 『인간시장』에 이어 황석영의 『장길산』까지 읽고 난 후 “장총찬과 장길산 형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라는 토론을

은 잠』, 조해일의 『겨울여자』, 하길종의 『바보들의 행진』 등을 급성장한 도시의 소비자 본주의 문화 속에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입사(入仕)를 거부하며 방탕하게 생활하거나 죽음충동에 사로잡힌 젊은이의 초상을 그린 ‘퇴폐 멜로’ 장르로 보았다.- 「남성적 ‘파토스(pathos)’로서의 대중소설과 청년들의 반 성장서사-박범신의 70년대 후반 소설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5집, 2013, 10쪽.

7)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011, 32쪽.

별이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다니 '장충찬'과 '장길산'이라는 대중 영웅이 하층계급 남성들에 얼마나 인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장충찬'이 대결하는 '현실'이란 과거 역사의 탐관오리나 부정부패가 아닌, '지금-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박정희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의사회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전두환 정권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돈키호테 같은 장충찬만큼은 '진심'으로 제5공화국의 이념을 신념으로 받들며 진짜 정의구현을 위해 싸워나간다. 물론 장충찬의 정의란 정치권력과 무관한, 창녀촌과 소매치기, 가짜 휘발유와 같은 뒷골목의 치안이나 민생 정의에 한한 것이다.

2. 르포·논픽션과의 혼종성

옵니버스식으로 진행되는 『인간시장』은 거의 유사한 방식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장충찬은 주변의 지인이나 우연에 의해 불의한 사건에 말려들게 되고, 표창과 멋진 액션으로 악의 무리를 소탕한다. 그 과정에서 007 처럼 섹시한 여성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하고 애인인 다혜를 '훔치려고' 애쓰거나 하느님을 호출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질타하거나 하는 대목들이 후렴구처럼 반복된다. 표제인 '인간시장'의 에피소드 또한 이렇게 진행된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다혜는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어 취재 시험을 보게 된다. 다혜를 사랑하는 장충찬은 그녀의 취재를 돕기 위해 서울역의 인신매매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새벽녘 누가 봐도 갓 상경한 시골뜨기 두 소녀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직장을 알선하고 보호해주는' 선도회라고 속이고 이들을 데려간다. 장충찬은 세 명의 건달패들과 맞서게 되고 표창과 주먹으로 이들을 제압한다.

싯! 싯! 싯!

표창이 정확하게 사내들이 꼬느고 있는 각목의 손잡이에 박혔다.

“움직이면 눈깔을 뺏다.”

나는 표창을 쳐들고 소리쳤다. 사내들이 각목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

세 사내는 각목을 힘없이 놓고 내가 가리킨 담장 옆으로 섰다. 나는 각목에 박힌 표창을 뺏 뒤에 그들 옆으로 갔다. 녀석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 방, 두 방, 세 방.

세 사내는 쪽 뺏어버렸다. 나는 청바지를 일으켜 세우고 검지로 이마를 내리쳤다. (1권 194쪽)⁸⁾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장총찬은 주먹과 칼, 표창, 그리고 조직 폭력배의 형님들, 그리고 무공스님에게서 배운 호신술과 권력으로 악의 무리를 제압하고 사건을 해결한다. 장총찬은 인신매매 조직인 ‘털보패’로부터 두 소녀를 구하고 이들에게 공장을 알선해준다. 그러나 장총찬이 고백하듯, 털보패를 혼낸다고 인신매매라는 근본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주먹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 뿌리가 깊은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한계는 『인간시장』 전편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장에 뛰어들어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장총찬의 활약에 열광한다. 사회악을 응징하는 장총찬의 호쾌한 액션에 대리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시장』의 인기는 이 시원한 액션과 통쾌한 복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텔구 와선 바로 카메라로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찍어요. 급행으로 사진

8) 이 글에서 저본으로 삼고 있는 『인간시장』 서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시장』 1부 10권, 해냄, 2019.

을 너댓 장씩 뽑지요. 이력서도 쓰게 하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정말 계집애들이 취직하는 줄 알 만큼 시끌시끌하죠. 그리고는 그날 당번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 그 방에 들어가면 계집애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목에다 칼 대고 옷 벗겨버리거든요. (…) 칼에 찔려 죽은 여자 사진도 있고 농약 먹고 죽은 여자 사진도 있고 그래요. 물론 털보 형님이 만든 것이지만요. 계집애들은 그 사진만 보고도 겁에 질려버리게 돼요. 만약 도망가거나 수틀린 짓을 했다가는 그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향집 약도와 가족사항을 자세히 알아놔요. 여차하면 고향에 쫓아 내려가서 소문을 내버린다고 하거든요.” (1권 203~204쪽)

위의 대목은 장충찬이 다혜를 대신해 인신매매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인신매매범죄의 디테일을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부분은 사실적이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인간시장』에는 저렇듯 사회 뒷골목의 현장 이야기가 곳곳에 넘쳐난다. 가령 고속버스에서 소매치기하는 이들의 수법, 퇴폐이발소와 퇴폐여관의 실태, 교재 채택료를 주고받는 교수와 출판업자들, 창녀촌, 사이버 종교집단, 마취주사로 짧은 간호원을 강간하는 산부인과 의사, 가짜휘발유 제작현장, 남창에 드나드는 여성지도자들, ‘재일교포’라고 속여 순진한 여성들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갈취하는 사기꾼, 연예인들을 거래하는 뚜쟁이와 프로듀서, 경연대회로 상을 파는 문화장사꾼, 한일교류문협이라는 사기단체로 한국여성을 일본으로 파는 신판 정신대, 일본의 변태 터키탕과 야쿠자, 부동산 투기현장 등등 장충찬이 총횡무진하는 현장은 70, 80년대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실제 사건들이다. 대중 독자들이 환호하는 것은 장충찬이 맞서 싸우는 현실이 실제 그들이 일장에서 실감하는 구체적인 사회악이자 비리들이기 때문이다. 사회 뒷골목과 현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인간시장』은 일종의 70, 8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르포이자 논픽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시장』

의 상당수는 당시 저널리즘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픽션화한 것이 많았고, 서사양식 또한 르포·논픽션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준다.

가령 사이비종교를 다룬 에피소드 〈하나님 주식회사〉(1권), 〈천국직행교 아멘〉(2권)은 75년 보도된 ‘장막성전교회’ 사건의 소설 버전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신흥종교단체 장막성전은 교주가 주술적 신앙으로 청계산 중턱에 신도 2천여명을 집단 거주시키면서 강제 노역, 간음 및 추행, 재산 갈취, 향락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실제 사건이다. 장총찬은 주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딸 ‘미나’를 구하러 산 중턱에 있는 ‘천국직행교’를 찾아간다. 그곳의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총찬은 ‘친구에게 거짓말’이라는 가장 저렴한 속죄권을 하나 구매해서 입장, 하나님의 독생성자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벌이는 사기행각을 목격한다. 성자의 본거지로 쳐들어간 장총찬은 삼십여명의 신도들에게 잡혀 지하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도망쳐 나온 뒤 다시 다른 일행들과 이곳을 습격해서 미나를 구출해낸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장막성전교회’ 뿐 아니라 76년 3백이 넘는 신흥종교수, 그 중의 80%가 유사종교였던 한국 사이비종교집단의 작태⁹⁾를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시장』의 많은 에피소드는 다음의 기사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르포적 성격을 보여준다.

(1) 서울지검특별수사부(안경상 부장검사 최종현 검사)는 11일 허황한 교리로 서민들을 현혹시켜 금품을 사취하고 미성년신도들을 혼음하는 등의 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 교주 구인회(34, 강남구 양재동)를 상습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72년 9월 영등포 구로동 동사무소 옆 지하실에 ‘새마을 전도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고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재림예수다. 73

9) 〈사이비종교를 뿌리뽑자〉, 『동아일보』 사설, 1976.2.13.

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천계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산에는 불기둥이 솟을 것이므로 돈을 가진 자는 이산을 넘지 못하니 돈과 재산은 모두 교주에게 바쳐야 한다”는 설교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고 (...) 구씨는 이밖에도 ‘천국에 가는 번호표’라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등근번호표와 ‘평생을 사는 보장서’를 개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 받고 신도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며 측근인 ‘3사도’에게는 16~20세의 소녀들과 동거생활토록 했는데,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소녀 3명은 현재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으며 (...). -〈似而非宗教(사이비종교) 일제수사〉, 『동아일보』, 1976.02.11.

(2) 한동안 서리를 맞는 듯했던 기지촌이 미군철수계획의 취소에 따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최근 들어서는 ‘제2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기지촌 경기의 부양과 함께 다시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 소개업소들이다.

‘여종업원 모집, 침식완전제공에 최고수입보장, 국제 결혼 희망하는 19-27세 여자, 초보자 및 지방인 환영 학력제한없고 당일 채용……’ 등등 (...) 근무할 곳은 ‘미군홀’ ‘외국인홀’ ‘국제홀’ 등으로 되어 있다. (...) 이들 무허가 소개업소의 모습은 변하다. 값싼 방 한칸에 전화 한 대, 여자 한두 명과 보디가드로 불리는 남자 한 명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여공이건 여고생이건 가리지 않고 전화 한통만 걸려오면 온갖 방법으로 피어 대개 당일로 그 ‘홀’이라는 곳에 소개비조로 돈을 받고 넘겨준다. 이들끼리는 이를 ‘즉결처분했다’고 말한다. 장사가 실통치 않을 때면 이들은 직접 고고장 디스크홀 등에 원정 나가 정신이 멍해 있는 나이 어린 소녀를 힘 안들이고 낚아내 팔아넘기기도 한다. (...) 노련한 포주들은 먼저 소녀들을 최대한 올려대고 겁주어 공포에 질리게 만든다. 빠져나가려해도 헛수고며 들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는 것을 사례를 낱낱이 들어 설명. ‘심리적인 자포자기상태’로 끌고 간다. (...)

포주들은 소내들을 일단 돈벌이 현장에 내보내면서부터는 환락적인 생활에 젖게 한다. 술 담배를 배우게 하고 나아가 환각제상습복용자가 되게

한다. 비싼 옷에 고급 화장품을 쓰도록 한다. (...) 기지촌을 탈출하려던 여자
자들이 다시 붙잡히면 혹독한 린치를 당한다고 한다. 도망치려는 아가씨들
만 전문적으로 붙잡아다주고 돈을 받는 '토벌대'라는 이름의 조직도 있다
는 것이다. -〈기지촌의 인신매매〉, 『동아일보』, 1983.6.21.

위 인용문 (1)은 사이버종교 실태를 다룬 기사이고, (2)는 기지촌의 매춘
실태를 다룬 기사이다. (1)의 주제는 위에서 논의한 〈하나님 주식회사〉(1
권), 〈천국직행교 아멘〉(2권)에 반영되고 있고 (2)의 주제는 서울역 인신
매매를 취재하는 〈인간시장〉을 비롯하여 전편에 자주 반복되고 있다. 『인
간시장』은 위의 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체와 내용, 즉 픽션과 논픽
션의 저널리즘적 글쓰기의 경계를 넘나든다. 또한 내용의 대부분은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현실의 부정적 실태를 소재로 하고 있다. 작가 김홍신
은 『인간시장』 집필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인기 작가 김홍신의 현
장 르포'를 연재하기도 했는데, 이 르포 또한 소설 『인간시장』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령 〈향락시장 3년 새 6배 된 사우나〉(『조선일보』,
1984.6.1.)라는 헤드라인으로 써내려간 기사, “룸살롱, 러브호텔, 사우
나, 카바레, 대형 갈비집 (...) 1981년에 13개이던 서울의 사우나가 금년들
어 무려 80여개소로 6배 이상 신장률을 보인 것은 소수의 부유층만 이용
하던 상류업소에서 대중업소로 전략한 셈 (...) 우리나라엔 느닷없는 떼부
자가 너무 흔하다. 부동산, 권력.....”는 『인간시장』의 한 대목으로 넣어
도 무방할만큼 닮은 꼴이다. 『인간시장』이 지닌 르포·논픽션적 성격은 장
충찬을 70년대 소림사 영웅 이소룡과 차별화시키면서 실감나는 하층민의
영웅으로 부각시킨다. 김홍신은 ‘르포’의 현실을 사실적 배경으로 구성하
고, 장충찬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하는 허구를 삽입함으로써
대중의 판타지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허구성은 『인간시장』이 지

닌 저널리즘적 리얼리티, 자연주의를 선정과 폭력으로 점철된 통속과 오락성으로 치닫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포적 픽션이 도시 뒷골목의 하층민의 일상과 세태를 집중 탐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70년대 자유주의, 낭만주의의 청년문화와는 분명히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시장』은 대중소설에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사회파 소설'¹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시장』이 보여준 '픽션과 논픽션'의 혼종성은 김홍신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여성동아엔 르포 라이터 유재순이 인신매매장에 잠입해 ‘서울서 팔리는 여인들’을 써냈다”¹¹⁾와 같은 보도에서 볼 수 있듯 70, 80년대에 기자의 현장잠입 취재보도가 성행했고, 체험수기, 고백수기, 실화 같은 논픽션 또한 70년대 대중서사물을 이루는 주요 장르 중에 하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¹²⁾, ‘1970년대 한국 저널리즘의 소재와 시각은 저널리즘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장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신문연재 지면이 증대되고 출판시장이 성장하면서 저널리즘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

10)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파 소설’은 60년대 일본 문단을 풍미했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사회파 추리소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마쓰모토 세이초는 1958년 사회파 추리소설의 시초라 평가받는 『점과 선』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파 추리소설의 대가로 알려진다. 그가 밝힌 기존의 추리소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사실주의(리얼리티)가 필요하며 트릭을 강조하기보다는 범죄의 동기를 사회성과 연결시켜야 한다. 본격파 추리소설의 장르성(오락성)과 결별하고 ‘일상성(개인)과 역사성(사회)’을 구현해야 한다.’(마쓰모토 세이초, 「나는 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검은 수첩』, 남궁가운 역, 북스피어, 2014, 32쪽; 안혜연,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 - 번역과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사이(SAI)』 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453쪽에서 재인용).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회파 소설’은 마쓰모토 세이초의 사회파 추리소설과 특성을 공유하지만, 단지 추리소설에 한정짓지 않고 ‘사회적 범죄’를 ‘사실주의’, ‘역사성과 사회현실’에 입각해 다루는 일군의 소설을 광범위하게 일컫고자 한다.

11) <10월의 여성지>, 『동아일보』, 1982.10.2

12)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No.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의 장르적 경계가 지워지기도 하는데, 각종 논픽션 공모나 황석영, 박태순, 조세희와 같은 기성 작가들의 논픽션 글쓰기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하층민의 일상은 저널리즘 글쓰기와 소설, 두 장르 모두 널리 채택한 소재이기도 한 것인데, 70년대 말의 『어둠의 자식들』(이동철의 체험과 황석영의 리라이팅 및 운문)은 이러한 장르 혼합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중독자는 신문연재소설을 뚜렷한 ‘문학적 자각’을 가지고 접하지 않고 르포, 논픽션, 체험수기, 유사소설 등과 구분되지 않은 문화 콘텐츠 혹은 대중독물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¹³⁾ 70년대 대중사회 및 출판산업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주간지’ 들은 다량의 대중독물을 필요로 했고, 70년대 대중잡지를 선도했던 〈선데이서울〉에서 볼 수 있듯 소설, 르포, 수기, 심층취재, 단신, 화보, 유사소설 등의 대중적 ‘읽을 거리’를 양산했던 것이다.¹⁴⁾ 이 연구에 따르면 문학과 비문학적 서사를 뒤섞은 하위장르의 범람은 ‘유호 시리즈’에 의해 대표된다. 유호 시리즈는 창간호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선데이서울〉의 대표적 서사물이었는데, 방송드라마작가 유호에 의해 집필된 이 유사소설은 플롯의 완결성이나 인과성과 무관하였으나 여성의 남성편력, 식모처녀의 모험담 등의 통속적 스토리를 통해 대중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소비되었다. 〈주간 한국〉에 연재된 『인간시장』은 〈선데이서울〉

13) 이러한 예로서 김성환은 『일간 스포츠』에 연재된 최인호의 연재소설을 들고 있다. 이 작품은 급증한 청년, 대학생 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지면인 ‘캠퍼스’ 면에 실렸는데, 이 소설은 대학생의 일상과 캠퍼스 동정을 다룬 캠퍼스 면의 다른 기사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43~50면 참조;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No.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368쪽에서 재인용.

14) 김성환, 「1970년대 〈선데이 서울〉과 대중서사」, 『어문논집』, Vol.64, 중앙어문학회, 2015.

의 유희시리즈에 대적하는 대중서사물로, 본격소설이라기보다는 논픽션, 르포, 수기 등의 장르 혼종성 위에 성립한 하위장르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인간시장』의 인기는 또한 당시 베스트셀러로 부각된 『어둠의 자식들』(황석영, 1980) 『꼬방동네사람들』(이동철, 1981) 『옛날 옛날 한 옛날』(이창우, 1981)¹⁵⁾과 같은 하층민 서사, 실화소설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제세산업을 설립하여 잘 나가다가 징역을 살다 나온 주인공이 억울함을 거침없는 욕설로 쏟아낸 『옛날 옛날 한 옛날』, 기지촌에서 태어나 뒷골목과 창녀촌, 교도소 등을 전전하며 험난한 삶을 살아온 전과 5범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실화소설 『꼬방동네 사람들』, 그리고 구술자 이동철(후에 국회의원 이철용으로 활동)과 집필가 황석영의 합작인 『어둠의 자식들』은 모두 급격한 산업화 이면에서 고통받는 하층민과 부랑자들의 생태를 폭로하고 있는 논픽션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욕설과 현장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시장』은 이들 서사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대중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하위남성들의 판타지-에로와 폭력

70년대 하층민 서사의 유행과 관심-가령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황석영의 『객지』 등-은 60, 70년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낳은 도시하층민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속도시로 표상되는 '인간시장'에서 속고 팔려나가고 추락하는

15)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011, 23쪽.

인간군상들 또한 이러한 도시 하층민 부류들이다. 장충찬은 이들 하층민들 위에 군림하고 이들을 위해 싸우는 ‘왕초’를 자처한다. ‘장충찬’은 ‘서자’ 홍길동과 ‘백정’ 임꺽정의 계보를 잇는 방외인이자 루저이다. 지방의 기차길 옆 동네 출신인 장충찬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여 4수 끝에 이류대학 법과에 입학한다. 기차길 옆 동네 시절부터 꼬마대장노릇을 했고 언제나 ‘왕초’가 되기를 욕망하지만 청년 장충찬의 실제 사회적 위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나보다 나은 놈들을 골탕먹이고 싶어 미치겠다. 나보다 못나고 가난한 녀석들을 나는 차라리 존경한다. (...) 나보다 잘난 사람이 또 너무나 많았다. 통상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서 일류대학 출신과 재학생, 판검사와 변호사, 의사의 숫자와 교수의 숫자, 부자의 숫자와 아버지를 잘 둔 자식들, 고급 공무원과 큰 회사의 간부들, 자가용차를 가진 사람들과 외국여행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들”(1:118)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장충찬은 ‘잘난 사람’에 대해 지독한 원한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청년 장충찬은 평범한, 그저그런 보통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왕초’ 욕망과 촌놈, 이류에 대한 자의식이 열등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보다 잘나 보인다’는 이유로 서울놈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서울 애들이 디스코를 추자 ‘각설이타령’으로 위악적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돈을 벌어 일류대학을 세운다면 절대 일등 한 놈들을 뽑지 않고 꼴찌부터 뽑을 거라는 장충찬은 그런 일등이 만든 한국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질타한다.

일등 하는 녀석들보다 꼴찌 하는 녀석들이 훨씬 싸가지가 있어. 공부만 잘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 우리가 어째서 일본애들한테 그런 치욕을 겪었는지 알겠어? 일제치하가 34년 11개월 19일인데도 굳이 36년이라고 우기는 치들하고 고구려의 저 광활한 영토를 당나라에 빼

앗기고 그걸 고마워해서 당태종 앞에 임금이 쫓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노예국이 된 신라의 문화만 찬란하다고 우기고 그걸 삼국 통일이라고 떠드는 치들. 독립운동이 마치 33인만이 주역인 것처럼 떠들면서 그 33인이 거의 모두 민족 배반자라는 걸 숨기는 치들, 조선조의 당파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었다고 부르짖는 치들과 우리 국민은 땡이처럼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고 부르짖는 식민지사관에 몰든 치들이 누군지 알아? 모두 일등 한 놈들이라구. (1권 69쪽)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장충찬은 승자가 되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일등들과 대적하는 이류의 왕초이자 영웅으로 종횡무진한다. 그는 일등하고만 싸우지 같은 이류, 하층민들과는 싸우지 않는다. 가령 소매치기 일화(〈사설왕국〉)에서는 소매치기들이 훔친 돈을 다시 훔치고 그들을 훈계할 뿐 경찰서로 보내지 않는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병폐, 이를테면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찰이나 그들을 부려먹는 두목을 고발해 보았자 득이 없는 사회풍조, 그 짓을 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들의 환경과 일부만 잘 사는 사회 속에 그들이 품고 있는 적개심 같은 것, 또 능력이나 성실한 대로 살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나 아부꾼, 험잡꾼, 파렴치한 족속들이 더 잘 사는 풍토를 탓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 작은 도둑놈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잡아?”(1:65)에서처럼 이류들의 부도덕과 부패는 보다 큰 불의의 시슬과 사회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충찬이 맞서 싸우는 것은 그런 거대한 조직과 사회구조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개별 사건과 개인들이다. 장충찬은 그런 그렇게 불거져나온 표면적인 부정부패의 장본인들을 혼내주고 척결하는 것으로서, “가진 자와 권 자만이 인정받는” 사회를 ‘공평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대중은 그런 그의 결의와 싸움이 공평사회를 가져다줄 거라 믿지 않지만, 기만적인 ‘일등’을 혼내주는 장충찬의 활약에 환호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러

하다.

호화판 결혼과 마담뚜를 비판하는 방담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유금동 박사라는 명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장충찬은 전화로 따지고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간다. 거기서 ‘류금동’이라는 함자를 목격하고 ‘류’에 새겨진 특권의식을 질타하고 ‘진료거부’를 내세워 그를 협박한다. 결국 성을 바꾸고 다음 방송에서 ‘저희나라’라는 표현을 사과, 정정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낸다. 또는 치맛바람에 휘둘린 무용선생과 교장선생을 파면시키고 청부폭행을 저지른 사립학교 이사장을 혼내주거나, 젊은 간호사들을 마취하고 강간한 산부인과 의사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공무원과 협잡, 가짜 도시계획서로 사기치는 부동산 투기꾼을 경찰서에 보내거나, 태극기와 국가 원수 존영을 팔러다니는 지능형 공갈배인 국기수호위원회,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속임수로 일관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을 폭력으로 다스린다. 이들 목록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나 일등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충찬의 종횡무진’은 80년대 내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조폭은 물론 중국 무술계·일본 야쿠자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장충찬의 주먹과 무예도 남성판타지에 불과하지만, 그가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황당무계하고 비현실적이어서 거의 코믹(만화)을 방불케 한다.

장충찬은 대학을 졸업하고 T주식회사에 입사원서를 내는데, 그곳 직원이 ‘Q대학’을 똥통학교라며 지원서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회장실로 쳐들어간다. 김갑산이라는 재벌회장은 그에게 사과를 하고 시험 및 면접의 기회를 준다. 장충찬은 필기시험지에 “출제위원들 벼락 맞아 뒤흔겨라 채점위원들에게 신의 가호를”이라고 쓰지만 회장의 면접을 거쳐 ‘암행감사’로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다. 회사 내 비리와 부정 감사를 맡은 장충

찬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여러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일하던 중,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으로 있는 사위와 아들이 유서를 조작하고 살해하려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회장은 장총찬의 신출귀몰하는 활약에 힘입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사위도 자식이라네'라며 가족을 용서한다. 이밖에 사건들의 전개 또한 개연성이나 인과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흘러간다. 즉 젊은 패기의 장총찬은 불의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해결하며, 쉽게 평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시장』은 70, 80년대 한국의 뒷골목 실태라는 리얼리티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배경으로 한 장총찬의 활약은 돈키호테적인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서사가 대개 그러하듯 그 경쾌함과 통속성, 판타지는 장총찬을 대중의 영웅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 이류 남성의 로망과 판타지는 '강력한 힘'에 대한 욕망으로 모아진다. 그리고 그 힘은 정치권력이나 재력이 아닌 '주먹'과 '섹슈얼리티'라는 본능적인 힘으로 표상된다. 장총찬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첫 장에서 보았듯 주로 표창, 주먹, 무술과 같은 무력과 조직 폭력배 동원이다. 그는 『입찌정』의 박유복처럼 표창을 귀신처럼 쓰고, 이소룡처럼 무림 고수에다가 그가 혈을 짚으면 다 사경을 헤매고, 또한 전국 주먹이나 조폭의 큰 형님들과 두터운 인맥을 지니고 있다. 폭력의 권능에 대한 믿음은 '법치국가'에 미달한 한국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편 액션이 늘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위력이라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현실과 무엇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식인지를 보여준다.

하느님, 이게 뭐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이 세상엔 법 가지고 안 통하는 게 너무나 많다고요.(...) 법으로 따지자면 저치들은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 다니는 무리와 지능적으로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불량학용품, 교과서 부정, 채택료 받고 교재 선택하는 교수, 자기가 지은 책 안사면 점수 주지 않는 선생님, 치맛바람에 휩싸여 점수 요리를 하는 치들, 반장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는 교사범, 실력보다는 돈으로 입학하는 가진 집 자식들, 월급보다 치맛바람으로 받는 봉투가 커 보이는 양반들... (1권 244~253쪽)

해방 후 1980년대까지의 한국정치는 거의 쿠데타와 국가폭력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의 정치깡패들, 5.16 쿠데타와 계엄령이라는 군사폭력, 그리고 12.12사태와 광주 진압, 삼청교육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과 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성과 합리의 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힘의 논리였다. 그리고 1990년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소탕하기 이전까지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놓고 다투고 야합하는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전국에 존재했다. 1975년에는 3대 조폭 중 하나인 양은이파 조양은이 신상사파에 쳐들어가 회칼로 휘두르는 ‘사보이호텔 습격 사건’이 있었고, 1986년에는 4명의 사망자를 낸 서진롭싸롱 사건 등이 벌어졌다. 『인간시장』에는 회를 거듭할수록 조직폭력배의 등장이 잦아지는데, 1부 후반부쪽으로 가면 일본 야쿠자까지 등장하는 스케일을 보여준다. 하위남성의 ‘왕초’ 노릇을 하며 조폭과 연대하여 무력을 휘두르는 장충찬의 폭력성은 국가가 독점한 폭력에 대한 반영이자 이에 대항한 80년대 시민폭력의 상징적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특징짓는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코드로 ‘폭력’을 제시하고 있는 김창남은 <람보>(1983 국내개봉), <람보2>(1985 국내개봉), <터미네이터>(1984), <영웅본색>(1987 국내개봉) 등의 남근주의적 폭력영화가 ‘시위와 최루탄, 폭력과 고문, 강력범죄’가 일상인 80년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¹⁶⁾

무법천지를 주먹으로 평정하는 '장총찬'의 무협활극은 80년대의 <람보> 류의 할리우드 액션, <영웅본색>과 홍콩 느와르와 성룡의 코믹액션과 연결되면서, 한편 70년대 유행했던 '김두한 시리즈'(이대근)의 깡패영화, <용쟁호투>(1973)의 이소룡의 계보와도 맞닿아있다. 『인간시장』 영화는 이 김두한 시리즈를 만든 70년대 한국 액션영화의 대부 김효천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장총찬이 보여주는 조폭 형님들과의 끈끈한 연대는 70년대에 흥행했던 '김두한' 시리즈와 연결되고, 장총찬의 무술은 이소룡과 그 아류작들인 권격영화와 연결되는 것이다. 김두한과 이소룡을 합쳐 놓은 듯한 최강자 '장총찬'에 대한 열광에는 도시하층민과 약자로 전락한 하위 남성계급들의 판타지가 반영되어 있다.

폭력과 함께 『인간시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는 코드는 마초적 섹슈얼리티이다. 장총찬은 호시탐탐 '다혜'를 '훔치기' 위해 애를 쓰지만, '다혜'에 대한 순정을 일순간도 버리지 않는 로맨티스트로 그려진다. 물론 국제 지하조직과 싸우는 와중에 자신을 위해 죽은 헤라와 영혼결혼식을 올리긴

16) "1980년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대중문화 코드는 폭력이다. 1980년대는 폭력의 시대였다. 폭력적 대량 살상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권력을 정당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해 서슴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권력과 체제에 저항하는 대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구속하고 고문하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졌다. 사회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대형폭력 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 1987년 4월에는 이른바 '람보파'를 자처하는 폭력배들이 유홍비 마련을 위해 강도짓을 일삼다가 급기야 살인, 강간을 저지르고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88년 10월 지강현 탈주 사건이 벌어졌다. (...) 시위와 최루탄, 폭력과 고문, 강력 범죄가 일상인 사회에서 억압된 대중의 욕망은 에로티시즘과 함께 폭력이라는 방향으로 분출되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에 의해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몰아치며 '힘의 논리'가 극성을 부리던 1980년대 폭력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코드였다. 할리우드에서는 아널드 슈워제, 네거와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근육질 배우들이 최고의 스타로 각광받았고 이들의 영화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 길거리에서건 어디서건 전투경찰이나 사복형사에게 검문당할 수 있던 시대, 언제 어디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고문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퍼져있던 1980년대의 대중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억눌린 공포감과 불안감을 해소했다." 김창남, 『한국대중문화사』, 한울아카데미, 2021, 268~270쪽.

하지만, 다혜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순애보와 별도로 장충찬은 많은 여성들과의 성적 만남을 마다하지 않으며 공공연히 “세상 모든 여자를 갖고 싶다”라며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낸다. 그는 다혜에 대한 순정과 남성의 성적 쾌락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는 곳마다 못여성들은 장충찬과의 황홀한 밤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한다. 장충찬의 이중성과 선정성은 『인간시장』이 탐사하는 뒷골목의 외설적인 장면-퇴폐이발소, 일본의 터키탕 등-과 함께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킨다. 그러나 춤바람 난 유부녀, 남창을 사는 여성들에게는 폭력도 서슴지 않고 꾸짖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표상을 보여준다. 모든 여성들에게 섹스어필하는 강한 남성이 되고 싶은 욕망, 또 모든 여성들을 성적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앞서 폭력이라는 ‘힘’에 대한 열망처럼 왜소한 남성과 하층민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다. 폭력과 섹스유흔리티의 ‘왕초’가 되고 싶어하는 장충찬은 파시즘과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 남근주의적 마초 의식을 감추고 살아가야하는 하위 남성들의 영웅표상이다.

『인간시장』에서 거침없이 펼쳐지는 여성편력과 에로장면은 3S로 우민화 정책을 펼친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이 가져온 80년대의 에로 영화의 범람과도 연결된다. <애마부인>(1982)을 이은 애마부인 시리즈와 <뽕>(1985)과 <어우동>(1985) 등의 토속 에로물과 포르노 비디오의 범람은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했지만 성적인 표현이나 향락 문화에서 대해서는 관대했던 5공정권의 소산¹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충찬의 에로 모험담은 그 80년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17) 김창남, 『한국대중문화사』, 한울아카데미, 2021, 271쪽.

4. 위장된 민족주의와 폭력의 시뮬라크르

『인간시장』이 거듭될수록 장충찬의 정의실현의 무대는 국내에서 점차 해외로 확장되어 간다. 특히 일본활약은 '인신매매'라는 특정무대의 연장 선상에 놓인다. 장충찬은 소아마비 대학동기인 명식의 동정을 떼어준 '서 유리'가 재일교포에게 사기를 당한 일을 계기로 일본으로 진출하게 된다. 장충찬은 일본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하여 못 여성들의 재산과 성을 갈취하는 가짜 재일교포 실업가를 혼내주고 '조국의 처녀들'을 팔고사는 '신평 정신대'의 루트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장충찬은 한국여성들을 팔아먹는 일본의 사기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일교류문협'이라는 비밀 단체를 통해 일본에 파견할 문화교류 특기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내고 그렇게 건너간 여성들은 일본 조직에 의해 윤락가로 팔려가는 가는 것이다. 이 국제적 인신매매 사실에 대해 장충찬은 더욱 격분하는데 그것은 '신평 정신대'라는 명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식민지 체험의 치욕과 일본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다. '쪽팔이' '정신대' 등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호출하여 복수의 민족주의, 애국심이라는 명분을 얻은 장충찬의 광분은 다음과 같이 폭발한다.

남의 나라의 순진한 처녀들을 사들여 윤락가에 팔아넘기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팔아 돈을 챙겨먹는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소녀들의 비명 소리가 재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학교마다 돌아다니며 정신대에 들어가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대동아단결의 기수가 되라고 외치던 소위 여성지도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진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나 그 후손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이 판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젊은 애들 손에 또 우리의 순박한 처녀들이 농락당하는 꼴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5권 37쪽)

장충찬은 국내 총두목인 ‘아베’를 잡고, 일본 야쿠자의 초청을 받고 후쿠오카로 간다. 그곳에서 일본 유명 탤런트의 성상납을 받는 등 야쿠자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마이즈루(舞鶴) 공원에서 이백여명이 지켜보는 동안 후쿠오카 대화단의 최강자인 다나카와 겨룬다. 다나카는 가라테와 십팔기, 쿵푸까지 겸비한 최고 실격자이자 바람의 일으키는 권법의 소유자였지만 장충찬은 오른쪽 주먹 하나로 손목 관절을 끊어 혈을 잡고 승리한다. 그 이후 장충찬은 후쿠오카 시립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고려청자, 이조자기 등을 야쿠자에게 선물목록에 넣도록 요구하고, 일본의 매춘현장에서 고통받는 한국 여성들을 구출해낸다. 이러한 장충찬의 일본에서의 활약 또한 국내 르포 탐사와 흡사한 형식을 보여주는데, 가령 공장 제도가 없다는 일본 섹스산업의 현장, ‘도로고후로’(터키탕, トルコ風呂)에 대한 실태 보고 등이 그러하다. 장충찬의 일본 활약은 그 이후 많은 분량에 걸쳐 계속된다. 장충찬 일당을 쫓는 야쿠자 폭력배 나가시마를 혼내주는 과정에서는 총격도 등장하는데, 장충찬은 ‘단추’ 하나로 나가시마의 눈두덩이를 겨냥해 날리는 신기를 보여준다. 야쿠자와의 화려한 대결에서 장충찬은 “한국 여자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해라. 마약 주사 놓고 학대하고 착취해서 먹고 사는 게 일본의 야쿠자라면 치사하지 않나”라고 훈계하며 민족주의적 명분을 내세운다. 또한 오사카의 쓰루바시를 탐방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계 학생을 마약 밀매에 이용하는 일본 조폭과 이를 편파보도하는 TV 방송국을 혼내줌으로써 재일 교포들을 돕기도 한다. 일본 야쿠자와 장충찬의 싸움에는 다음과 같이 과거 식민지인의 울분과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대결 의식, 그리고 열등감에 대한 반발로서의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다.

“작은 나라를 장난감 병정처럼 가지고 노는 강대국이란 너을을 쓴, 인권

이나, 휴머니즘이니 또는 코스모폴리터니즘이니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들은 약소국의 국민들 생명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열 명의 죄인을 엄단하기 위한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매섭게 다루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희열을 사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직분에 쾌락을 느껴보지 말란 법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난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 무공 스님에게 배워온 사내였다.(...) 일본 놈이라면 씨를 말리고 싶지만, 아무리 내게 악독하게 군 놈이라도 나는 결코 죽이진 않을 것이다.”(6권 122쪽)

일본에 대한 복수심, 민족적 대결구도는 이후에도 더 큰 스케일로 계속 되는데, 가령 7권에서 장총찬은 일본 신민회 간부에 의해 납치된다. 이유는 장총찬을 일본인으로 바꾸어 일본의 대리인으로 일본 암흑가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일본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침략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친일파 경제인, 정치인 등을 양성하고 있는데, 장총찬 또한 그러한 친일 특공대의 일원이자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장총찬은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지만, 이 판타지적 국제적 힘의 대결은 더욱 확장된다. 9권의 〈사악한 흥정〉에서는 다혜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과 소련의 지하조직이 미국과 유럽 지역의 세계 최강 지하제국의 왕자격인 킹단에 맞서 킹단의 보물단지를 훔치기 위해 장총찬을 외인부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다. 장총찬은 파리, 아테네 등을 종횡무진하며 전 세계 지하조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킹단의 보물단지-현금과 보물, 마약밀매의 루트, 거래 방식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일본 지하조직 보스인 큐와 소련 쪽 보스인 유다 등을 일망타진한다. 이때의 장총찬의 활약은 지프와 특수차량, 무전기, 헬리콥터, 모터보트, 기관총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져 007과 같은 외국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외에도 『인간시장』의 영웅주의는 민족·국가주의, 국제적 패권주의

의 이념을 보여준다. 이는 위의 일본, 소련 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포함한다. 4권 〈무공스님〉 편에서 장충찬은 중국 정통파 유기하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는 조폭 넘치형을 손가락까지 자르면서 굴욕케 한 고수이다. “이건 중국 정통파와 무공가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 중국 정신의 불꽃”(4:119)이라는 넘치형의 발언은 이들의 싸움이 국가적 힘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충찬은 유기하의 대결에서 패하고, 무공스님을 찾아가 몇 달간의 혹독한 훈련 받은 끝에 결국 유기하와의 재대결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장충찬의 민족주의는 “일본 계집이라면 짓뭇개버리고 싶어”(5:132)에서처럼 비뚤어진 섹슈얼리티의 복수심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애초 한국 사회현실을 탐사·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장충찬’이라는 액션영웅을 통해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사회파 소설’로서의 『인간시장』은 후반에 갈수록 비슷한 소재와 주제를 반복함으로써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일본이나 해외를 무대로 한 민족·국가주의로 흐른다. 이러한 국제간 경쟁과 패권주의는 국내 조폭의 확장판, 즉 대개 국제 지하조직의 대결로 설정된다. 이러한 대립에서 70, 80년대의 냉전체제를 반영하여 소련을 적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일본’을 가장 주요한 적이자 악의 무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시장』의 민족주의는 사실 60, 70년대의 관제 혹은 학계의 민족주의 담론과 흐름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60년대 만주활극에서 재현된 ‘뒤늦은 항일투쟁’의 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충찬의 일본 야쿠자와의 대결과 국제활약은 1980년대 초중반을 들끓게했던 한국의 대중감성을 가장 첨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80년 광주항쟁과 제5공화국 출범 등의 군사폭력의 재등장은 87년 민주화 항쟁에서 알 수 있듯, 역설적으로 80년대를 내내 민주화의 열망으로 달구게 했고 민중·학생 운동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인간시장』 후반부의 민족주의는 초반에서 보여준 '논픽션적 실태보고'와 맞닿아 있는 사회파 리얼리즘 정신에서 후퇴한 것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유사한 팬시한 감성과 흡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위장된 민족주의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해 사회 악의 무리를 응징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하는 장충찬의 싸움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장충찬이 대적하는 '강자'란 인신매매 조직, 재일교포 사기꾼, 부패한 의사, 재벌가 등의 '개인'이나 조직 폭력배나 일본 야쿠자와 같은 '지하조직'일 뿐 더 큰 권력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곧 신군부라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안전한 '민족주의'라는 명분처럼, 장충찬의 '안전하고 팬시한' 현실탐사와 정의실현은 대중소설로서의 『인간시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저항적 주체로서의 남성성, 강력한 남성 영웅'이 대중서사에 호출되는 때는 외세 침략에 의한 공동체가 와해의 위기에 놓였을 때였다. 한국 현대사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일제에 합병되기 직전인 '애국계몽기', 식민지 시기, 그리고 해방 직후 민족국가 재건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의 구국의 영웅은 '거세된 남성'과 대극점에 있는 '강력한 남성상'으로 표출되는데, 이때의 '남성'은 곧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윤리관에 기초한 국가의 주체, 계몽의 주체, 가부장적 주체이기 쉬웠다. 그리고 이는 '민족/국가'는 전쟁과 대결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신체와 힘을 가진 남성상으로 표상되곤 했다.¹⁸⁾ 『인간시장』의 폭력과 섹슈얼리티의 담지자로서의 마초 장충찬은 민족·국가주의로 연결되면서 일본 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제국주의

18) 애국계몽기 역사·전기 소설에서 반영된 '민족영웅과 저항적 남성상'에 대해서는 송명진의 「민족 영웅의 발명과 저항적 남성성의 전통 만들기」(『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4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참고.

적 탐욕과 악을 계몽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강력한 남성성은 70년대 퇴폐적 멜랑콜리에 젖은 패자의 형상으로서의 ‘거세된 남성성’에 대한 반동으로서 80년대 초 대중에게 환영받았다.

『인간시장』은 맹목적 ‘성공’과 ‘섹슈얼리티’라는 대중 욕망의 마스터코드를 벗어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사회정의’를 문제삼음으로써 80년대의 새로운 영웅형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충찬’은 하위 남성을 비롯한 부패한 현실과 불평등을 ‘부정의’와 좀더 근본적인 국가권력이나 계급문제 등으로 심화하지 않고, 코믹과 판타지의 차원에서 현실 문제를 봉합하고 있다. 장충찬이 마주한 ‘폭력’과 ‘비리’는 5공화국이 재현하고 있는 파시스트의 비민주적인 국가폭력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인간시장』은 80년대의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라크르-‘인신매매, 촌지교사, 조직폭력배, 부동산 사기꾼, 비리 의사’-의 전시를 통해 이러한 폭력 외에 진짜 문제될 폭력은 없다며 실재하는 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다. 『인간시장』은 실재하는 가장 위험한 ‘진짜’ 폭력 대신, 실재하는 덜 위험한 ‘가짜’ 폭력들을 전시, 제거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정의사회구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의구현이 장충찬의 무술, 표창, 조직폭력배 동원에 의해 수행되는 것도 여전히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80년대 폭력적 현실에 대한 시뮬라크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시장』의 논픽션 현장 탐사의 리얼리티가 자극적 폭로와 외설, 남근 숭배 등의 섹슈얼리티로 흐려진 것도, 사상과 이념 검열에는 엄격했으나 에로나 섹스산업 등에는 관대했던 5공화국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5. 나오며

이상에서 대중소설 『인간시장』의 특징과 대중문화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인기는 무림의 고수이자 정의 수호자인 '장충찬'의 영웅적 활약상에 힘입은 바 크다. 장충찬은 70년대 청년문화가 보여주는 '퇴폐 멜로'의 반항아들과 달리 불의에 맞서 싸우는 투사형 청년이다. 신군부 쿠데타, 80년 광주비극 등의 5공화국의 폭력적 현실에 의해 다시 한번 좌절한 대중은 이 저돌적인 청년의 돈키호테적인 활약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러나 장충찬이 수호하는 정의란 '인신매매, 소매치기, 재벌 비리'와 같은 뒷골목의 치안이나 민생 정의에 한한 것이다. 장충찬은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등의 의적, 토착적 영웅 계보를 잇고 있으나, 70, 80년대 당대 현실에 훨씬 더 밀착해있다. 『인간시장』의 인기비결은 70년대 대중독물의 한 특징인, 르포·논픽션적 현장 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시장』의 많은 내용은 당시 저널리즘에 등장한 사건들을 픽션화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서사양식 또한 르포·논픽션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준다.

장충찬은 방외인, 루저와 같은 하위남성들을 대표한다. 장충찬은 이들을 대신하여 부패한 일류를 응징하고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수단은 주먹, 표창, 무술,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폭력배와의 연대이다. 이러한 수단에 의한 악의 응징은 근본적인 구조를 도외시한 채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대리만족을 겨냥한다. 폭력과 함께 『인간시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코드는 마초적 섹슈얼리티이다. '왕초'가 되고 싶어 하는 장충찬은 파시즘과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 남근주의적 마초의식을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하위 남성들의 영웅 표상이다. 『인간시장』은 후반부로 갈수

록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있다. 민족/국가주의 영웅은 장충찬이라는 남근주의적 영웅형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이 이념은 군부독재라는 당시 폭력적 현실을 은폐하고, 대중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대리만족을 안겨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부패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장충찬의 폭력, 섹슈얼리티는 일종의 80년대에 대한 시뮬라크르로 볼 수 있다. 장충찬의 영웅주의는 데칼코마니처럼 80년대 독재정권을 모방하면서 근본적인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인간시장』 1부 10권, 해냄, 2019.
- 〈사이비종교를 뿌리뽑자〉, 『동아일보』 사설, 1976.2.13.
- 〈似而非宗教(사이비종교) 일제수사〉, 『동아일보』, 1976.02.11.
- 〈10月の 여성지〉, 『동아일보』, 1982.10.2.
- 〈기지촌의 인신매매〉, 『동아일보』, 1983.6.21.

2. 논저

-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유신체제 문학의 현실인식-1979년.12.12부터 1983년까지의 비평담론」, 『한민족문화연구』, Vol.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501쪽.
-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No.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 _____, 「1970년대 〈선데이 서울〉과 대중서사」, 『어문논집』, Vol.64, 중앙어문학회, 2015.
- 김은하, 「남성적 '파토스(pathos)'로서의 대중소설과 청년들의 반 성장서사-박범신의 70년대 후반 소설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5집, 2013, 10쪽.
- 김창남, 『한국대중문화사』, 한울아카데미, 2021, 268~270쪽.
- 김홍신, 〈나의 작품 나의 얘기 김홍신 '인간시장'〉, 『동아일보』, 1990.11.1.
- 송명진, 「민족 영웅의 발명과 저항적 남성성의 전통 만들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4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독서사』, 서해문집, 2018.
-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교보문고, 2011, 32쪽.

Abstract

The 'macho' hero of socialist novel, Jang Chong-chan of *'Human Market'*

Jung Eunkyong(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novel *'Human Market'*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popular culture. The popularity of *'Human Market'*, which is a 'Korea's first million-seller', is largely due to the heroic performance of 'Jang Chong-chan', a master of martial and a defender of justice. Unlike the rebellious sons of the 'decadent melodrama' shown in the youth culture of the 70s, Jang Chong-chan is a fighter-type young man who fights against injustice. Frustrated once again by the violent realities of the Fifth Republic, such as the new military coup d'état and the 1980 Gwangju tragedy, the public felt catharsis at the Don Quixote-like activity of this rebellious young man. However, the justice that Jang Chong-chan protects is limited to back alley security and justice for people's livelihoods.

Jang Chong-chan continues the genealogy of heroic and indigenous heroes such as 'Hong Gil-dong', 'Im Kkeok-jeong' and 'Jang Gil-san', but is much closer to the reality of the time in the 1970s and 1980s. The secret of the popularity of *Human Market* is closely related to the on-the-spot performance of reportage and non-fiction. Many of the contents of *Human Market* are not only fictionalized cases of events that appeared in journalism at the time, but also the narrative style shows characteristics that are close to reportage and non-fiction.

Jang Chong-chan represents low-ranking men such as outsiders and losers. On their behalf, Jang Chong-chan intends to punish the corrupt first-class and realize a fair society. And the means are fists, martial arts, and solidarity with gangs across the country. Punishment of evil by these

means aims at sensual and immediate vicarious satisfaction while ignoring the fundamental structure. Another code that penetrates *Human Market* along with violence is macho sexuality. Jang Chong-chan, who wants to become a 'padrone', is the hero of low-ranking men who are oppressed by those with fascism and have to hide their phallic macho consciousness. *Human Market* expresses the ideology of nationalism in the second half. The national hero is closely related to the phallic heroic figure of Jang Chong-chan, but this ideology only conceals the violent reality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at the time and provides familiar and safe vicarious satisfaction to the public. In conclusion, Jang Chong-chan's violence and sexuality fighting against the corrupt reality of the time can be seen as a kind of simulacrum of the 80's. Jang Chong-chan's heroism is like decalcomanie, imitating the dictatorship of the 80s and hiding the fundamental violence.

(Keywords: heroism, *Human Market*, 80's, macho, violence, sexuality, reportage, nationalism, simulacrum)

■ 논문투고일 2022년 09월 26일

논문심사일 2022년 10월 1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